

李 ‘빛의 혁명’ 광화문·金 ‘보수 강세’ 부산서 첫 유세

이재명

김문수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D-22

오늘부터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진 확정
광주·전남 정치권 선거 체제 전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
진표가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
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본선 무대에 올라 12일 0시부터 6월 2일
자정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
한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한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빛의 혁명’의 상징
성과 맞물려 광화문 광장부터 경기도, 대
전 등 남쪽으로 이동하는 유세 동선이다.
선거운동 기간 유세 콘셉트는 ‘경청’과
‘통합’으로 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장은 1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식선
거운동 개시 첫 번째 유세를 광화문 광장
에서 진행한다”며 “빛의 혁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번 대선이 내
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
로 바로세우는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 한양E&C에 선거 유세에 투입될 차량이 놓여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유세 차량과 후보 교체를 두고 갈등을 빚다 전날 확정된 국민의힘의 미완성 유세 차량의 모습.

연합뉴스

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K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남쪽으로
쭉 진행하는 유세 콘셉트를 갖고 진행한
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서울을 시작으
로 경기도, 대전 등 남쪽으로 내려가는 코
스를 내일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10대 정책·공약도 12일 공개
한다.

조 단장은 또 ‘러시아 소총 반입’ 제보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
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기 과

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로 등록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위
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자리”라며 “반드시
당선돼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선거운동 첫날 유세 지역은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이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내일 부산을 방
문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
직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
하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당 지도부를
향해, ‘광복의 빅텐트’를 강조하는 등 당
내홍 수습에도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전 개혁신당
의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선출된 이준석
후보는 10일 직접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 후보는 “계엄으로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렸던 세력도 심판받아야 하고 이제
기고만장해서 삼권 분립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 등 두 세력을 막아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후보로서 역할
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 첫 일정으로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찾는다. 이후 국회 소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 각오
와 비전 등을 밝힌 뒤 광화문과 청계광장
에서 첫 집중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
와 자유통합당 후보, 송진호 무소속 후
보, 황교안 무소속 후보 등도 대선 후보 명
단에 이름을 올렸다.

3면에 계속

서울·김선옥·오지현 기자

광주시, 5·18 45주년 ‘민주대축제’ 연다

17일 추모제 등 시민 참여 전야제
대중교통 무료… 오월텐트촌 등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가 ‘오월 민주주의 대축제’로 펼쳐진다.

광주광역시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
운동’을 맞아 총 145개의 다채로운 행사
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17일 오전 10시30분 국립5·18민

주묘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5
·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
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애도하는 ‘5·
18민주화운동 추모식’이 열린다.

80년 시민자치의 나눔공동체 대동세상
을 구현하는 ‘시민난장’은 17일 오전 11
시부터 5·18민주광장, 동구 금남로1~3가
차 없는 거리, 동구 중앙로 일대에서 열린
다. 시민참여 거리버스, 오월연극제, 민

주주의 대합창, 민주미술 전시 등으로 구
성됐다. ‘오월연극제’는 17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
서 5·18을 알려온 광주의 대표 극단들의
연극을 선보인다.

‘민주주의 대합창’은 같은날 오후 4~6
시까지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
된다. 부산 ‘박종철합창단’, 안산 ‘4·16합
창단’, 서울 ‘이소선합창단’과 ‘6·15합창

단’, 광주의 ‘1987합창단’, ‘흥사단기려
기합창단’, ‘푸른솔합창단’이 함께 한다.

오후 4시부터는 80년 5월 14~16일 금
남로로 햇불행진 했던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진행된다.
올해는 참가단체별로 5곳(광주·북동성
당·조선대·전남대·광주역)에서 출발하며,
출발지별로 현수막과 피켓, 깃발 등을 준비
해 전야제가 열리는 금남로로 집결한다.

오후 5시부터는 5·18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시작된다. 금남로4가역 교차
로 4면을 이용한 무대가 준비된다.

특히 오월광주 특별체험 기획행사로

17~18일 광주지역 대중교통(시내버스·
도시철도)·교통약자이동차량 무료 이용
확대, 17일 중앙초등학교에서 ‘오월 텐트
촌’ 운영, ‘소년의 길’ 조성, 주먹밥 나눔·
빵 할인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5·18의 연대와 나눔정신을 느낄 수 있도
록 준비했다.

18일 오전 10시에는 국가보훈부 주관
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5·
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5·18민주광장에
서는 오후 5시 ‘민주의 종 타종식’이, 오후
7시 ‘2025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개최
된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내일이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
5.15.(목)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민주평화대행진
5.17.(토) 16:00
광주고등학교

5·18전야제
5.17.(토) 18:00
금남로 일대

5·18기념식
5.18.(일) 10:00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인권상 시상식
5.18.(일) 19:00
5·18민주광장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5·18 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지하철·버스 무료
(17~18일)

오월 텐트촌 운영
(17일 밤)

소년의 길 투어

주먹밥·빵 나눔

5·18민주묘지 추모탑

두 손으로 '난형환조(희생 당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부활을 상징)'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표현